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8.25(금) ~ 2023.08.31(목)

제공일시 2023 09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8.25(금) ~ 2023.08.31(목)

제공일시 2023 09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세계는 지금 '그린워싱' 규제 도입 중...“한국도 ‘가짜 친환경’ 감시하는 입법 필요”

- 가짜 친환경으로 불리는 '그린워싱'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사례 등을 규정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그린워싱 제재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국내는 대부분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그린워싱 규제의 대상은 제조물(제품)에만 한정돼 범위는 물론, 처벌도 솜방망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외국처럼 국내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친환경 성과를 증명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고, 규제의 대상을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 홍보와 사업 홍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는 이미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입법이 늘고 있고, 당국의 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조선비즈, 2023.08.28\) 김충용 기자](#)

2. 싱가포르 '아시아탄소협회' 출범...亞 첫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

- 유럽·북미, 카타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민간 탄소감축실적을 인증해주고 등록을 주관하는 단체가 출범했음
- 싱가포르에서 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검증을 주재하는 비영리기구 '아시아탄소협회'(ACI, Asia Carbon Institute)가 발족했음
- ACI는 전기차 충전소, CCUS,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 자체나 기반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통해 더 입증 가능하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닌 탄소상쇄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VCM의 한계를 극복할 다른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임
- ACI는 현재 20개 탄소상쇄사업을 논의중이며, 6~12개월 내 이를 50개로 늘릴 계획임 각 탄소상쇄사업은 적게는 연간 1000톤에서, 많게는 100만톤의 탄소저감 성과를 목표로 함

[\(뉴스트리, 2023.08.30\) 이재은 기자](#)

3. EU 집행위원회도 리튬염 '유해물질' 규정...배터리업계 '촉각'

- EU 집행위원회가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리튬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배터리 및 전기차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업계에서는 리튬염 사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해물질로 분류되면서 리튬염의 가공 및 포장, 운반 과정에서 기존 방식을 넘어선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리튬염에 대한 규제가 유럽 지역에서만 이어지면, 현지 생산시설 및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이 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업계에서는 리튬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특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폴란드 화학산업회의소(PIPC)는 "EU의 이번 규정은 생식 독성 분류 기준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활용한 데이터의 품질 역시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더구루, 2023.08.30\) 김도담 기자](#)

1. 정부 여당,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육성 위한 지원 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음
- 이 자리에서 당정은 CCU 기술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 당정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CU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정부는 CCU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음
- 또, CCU 분야 중점연구실 지정과 탄소중립 기술지원단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당정은 CCU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 외에 기술·기업 인증,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등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음

(조선비즈, 2023.08.25) 이종현 기자

(문학일보, 2023.08.25) 최지영 기자

2. 자원순환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엔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
-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음

(국토일보, 2023.08.25) 선병규 기자

3. 서울시, 10억 넘는 추경사업도 탄소 배출 여부 따진다

- 서울시가 규모 10억원이 넘는 다년도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따져 보기로 했음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예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임
-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각 사업을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 감축사업, 발생하면 배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서울시는 올해 예산에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인 209개 사업, 3조 1216억원의 예산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52조 3878억원)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로, 19.6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분석됨
- 시는 내년 예산부터는 해당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라도,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과 추경 사업도 기후예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음

(서울신문, 2023.08.29) 오달란 기자

1. MSCI, 투자자 기후 리스크 관리 위한 AI솔루션 위해 구글과 파트너십

- MSCI와 구글 클라우드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기후 위험을 평가하고 저탄소 투자 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하여 투자 산업을 위한 일련의 생성형 AI 솔루션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 MSCI와 구글 클라우드가 2023년 1월에 시작한 파트너십의 확대를 의미함 MSCI는 데이터, 통찰력 및 솔루션을 통해 투자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투자 데이터 및 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새로운 기후 중심 솔루션 외에도 파트너십의 주요 초점 영역에는 MSCI의 독점 데이터 및 분석을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 솔루션과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및 기업 수준 위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동시에 분석 및 분석 시간을 줄이는 솔루션이 포함됐음

[\(ESGToday, 2023.08.30\) Mark Segal 기자](#)

2. 투자자들, ISSB에 인권 및 인적자본 보고 표준 개발 촉구

- 자산 1조달러 이상 대표 투자자그룹이 ISSB에 서한을 보내고, 기업들이 인적자본과 인권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글로벌 보고기준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음
- ISSB는 지난 6월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세트를 발표했고, 최근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를 포함한 4가지 향후 프로젝트를 개요를 설명하고, 다음 2년 간의 작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피드백을 요청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세어액션(24곳 투자자들의 모임인 책임투자클럽)이 보낸 서한은 ISSB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해고, 사임, 노동시장 회복지원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역대 최고치”라며 인권실사와 관련한 주제를 취급해야 한다고 서한을 보냈음

[\(ESGToday, 2023.08.31\) Mark Segal 기자](#)

3. 에퀴노르, 국내 4대 대기업과 해상풍력 손잡다

- 에퀴노르가 추자도 인근 해역의 '후풍' 및 '추진' 해상풍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4대 대기업과 손잡았음
- 에퀴노르는 30일 현대엔지니어링, LG화학,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4개사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후풍·추진 해상풍력의 성공적인 수행에 박차를 가함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신고식에서 에퀴노르가 한국의 해상풍력 및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후 나온, 첫 국내 기업과의 협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에퀴노르에 따르면, 이번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과 연결된 다양한 옵션 및 기회도 모색할 예정으로, 이 중에는 부유식·고정식 기술, 수소 및 디지털화 등도 포함됨

[\(에너지신문, 2023.08.31\) 권준범 기자](#)

1. '1500조 친환경 시장'에 배 띄웠다...글로벌 주도권 되찾는 조선

- 한국 조선사들이 2031년까지 신규 선박 수주만 매년 150조원 이상, 총 1500조원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클라크슨리서치)되는 친환경 선박(메탄올-LNG 추진선 등)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음
- 기회를 잡은 조선 3사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꾸준히 절반 넘는 수주를 기록. 조선 3사 모두 친환경 선박 시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만6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선 16척을 약 3조9000억원에 수주했고, 한화오션도 선박에 적용 가능한 메가와트시(MWh)급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음
-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 수주 우위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전 세계 발주량의 44%를 수주하여 현재까지 발주된 총 117척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중 61척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상태임

(조선일보, 2023.08.29) 이정구, 이기우 기자

2. 친환경 바이오항공유 뜨는데...국내선 가격·규제에 막혀 상용화 '난망'

- 항공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항공기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바이오항공유가 떠오르고 있음
- 하지만 국내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산업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가격이 비싸 시장화까지 오래 걸릴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상 바이오항공유를 친환경바이오에 포함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대체 원료도 정제할 수 있게 하는 등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GS칼텍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 달 미주노선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바이오항공유를 들여와 배합할 예정.

(굿모닝경제, 2023.08.29) 김소라 기자

3. 삼성중,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해양사업 영역 넓힌다

- 삼성중공업이 말레이시아 현지시간 3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노르웨이 선급인 DNV로부터 '부유식 이산화탄소 저장·주입 설비(FCSU, Floating CO2 Storage Unit)'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음
-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해상 에너지솔루션 기업인 MISC와 공동 개발한 FCSU는 길이 330미터, 폭 64미터 크기로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이산화탄소 10만 입방미터(m³)를 저장할 수 있는 고압 탱크 용량을 갖춘 것이 특징임
- 특히 선체 상부에 탑재되는 주입 모듈은 연간 5백만톤(MTPA)의 이산화탄소를 해저면 깊숙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성능을 확보했음
- MISC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이산화탄소를 고갈된 해저 유정 및 가스정에 저장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삼성중공업은 FCSU를 공급하는 형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글로벌경제신문, 2023.08.31) 천선우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8.25(금) ~ 2023.08.31(목)

제공일시 2023 09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CDP, 물 안보 분야에서 3048조원의 투자 기회 생길 것

(임팩트온, 2023.08.25) 유미지 기자

- 지난 23일(현지시각)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CDP는 민간 부문에서 물 안보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2조 3000억달러(약 3048조원)의 잠재적인 상업적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했음
- 이는 지난 5년간 CDP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591개 기업의 자체 공개 재무가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임
- 참여한 기업으로는 휴렛팩커드(Hewlett Packard), 마스(Mars), 로레알(L'Oréal), 닛산(Nissan), 삼성(Samsung)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 등이 있음
- 이들은 물 효율성, 제품 및 서비스, 새로운 물 관련 시장, 복원력이라는 네 가지 주요 영역에 주목했음
- 물 효율성은 소매업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됐고,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로 1조7000억달러(약 2256조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 이어 3280억달러(약 435조원) 규모의 새로운 물 관련 시장이 생겨났으며, 극한 기후에 대한 복원력이 향상되어 약 2310억달러(약307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전했다
- 새로운 물 관련 제품의 상업적 기회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로레알은 물 없이 사용 가능한 샴푸를 생산하고 있고, 유니레버는 물 없이 사용하는 세제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은행인 BBVA는 물 발자국 감소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대출을 만들었음
- CDP는 이 보고서를 물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는 연례 회의인 '세계 물 주간(World Water Week)' 동안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새로운 분석은 올해 초에 출판된 CDP의 '2022년 글로벌 물 보고서(Riding the Wave)'의 연구의 일부로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CDP의 물 부문 수석 관리자인 미리암 데니스 르 세베(Miriam Denis Le Seve)는 CDP 블로그 글을 통해 "CDP는 2009년 이래로 설문을 계속해 왔지만 지난 2022년 3900개 이상의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는 5년 동안 85%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 또한, 데이터를 인용해 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최대 790억달러(약 105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2년 기준 58%의 기업이 물 사용을 유지하거나 줄이고 있고, 63%가 물 관련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음
- 실제로 물의 가치에 주목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한창임.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물의 양 때문에 가뭄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물 소비량보다 많은 양의 물을 복원하고,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물을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응 방식을 내놓고 있음
-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지역사회에 반환하는 '물 포지티브' 프로젝트를 시행했음
- 르 세베 수석 관리자는 민간부문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대체로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 CDP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물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규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하고, 종종 기후 문제와 함께 묶여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기업이 이미 물의 가치에 주목해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앞으로 명확한 지침과 규제를 가지고 개입해야 물 안보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